



김연아와 함께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곽민정이 29일 오후 전주 화산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경기에서 매혹적인 연기로 관중들을 유혹하고 있다. /연합뉴스

“30홈런 100타점 이상 목표”

이승엽 생존경쟁 배수진 치고 일본 출국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를 맡고 있는 친구가 뭐가 잘못됐는지 조심스럽게 알려주더라. 그걸 고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다.”

이승엽(34·요미우리 자이언츠)은 현재 몸무게가 94kg으로 두 달여 전 귀국했을 때보다 4kg 정도 불었다고 했다. 겨우내 운동을 좀 줄이는 대신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

문제는 마음에 있었다. 성적 부진으로 받았던 스트레스를 즐기분하게 털어버렸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으니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말했다. 자신감을 되찾은

것이 이번 겨울의 가장 큰 소득이었다.

29일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 김포공항 출국장 앞에서 인터뷰에 나선 이승엽은 “지난 시즌을 마치고 안 좋았던 버릇을 고쳤다. 곧바로 경기에 나갈 수 있는 몸 상태가 됐다. 손가락, 무릎 모두 전혀 이상이 없다”며 입을 열었다.

다음은 일본일담.
 -올 시즌 목표는, ▲일단 경기에 많이 나가는 것이고 홈런 30개 정도는 때려야 한다. 타점도 100개를 목표로 잡았다.
 -올해가 야구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

을 것 같은가.

▲마지막 기회다. 성적에 따라 진로가 바뀔지 모른다.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과는 받아들여야 한다.

-비시즌에 고친 나쁜 버릇이란 게 무엇인가.

▲기본인데 못했던 것이다. 힘을 빼는 것이다. 어깨와 손에 힘을 빼는 것 말이다. 나쁜 버릇을 조금 고친 게 됐다. 야구는 그런 쪽에 민감하다. 한때 패닉 상태에 빠졌었는데 왜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알게 됐다. 삼성 김한수 코치가 지난 시즌 막판 요미우리에 있을 때 도와줬다. 한국에 와서는 고등학교 코치를 맡고 있는 친구가 조심스럽게 가르쳐줬는데 공감이 되더라. 나는 몰랐던 부분



이다.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 얘기를 안 꺼낼 수 없는데. 재발탁된다면 출전하고 싶은가.

▲당연하다.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앞두고는 워낙 안 좋아서 대표팀을 마다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뺏기고 싶다. 조건은 좋은 성적 아니겠느냐.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내야 뽑히는 것이다. 야구는 이점으로 하는 게 아니다. 광저우에 가고 싶다.

-김태균(지바 롯데), 이범호(소프트뱅크)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은.

▲야구 얘기는 조언해줄 게 없다. 잘하도록 지켜봐주는 것 밖에는. 생활면에서는 물어본다면 알려줘야지. /연합뉴스

박주영 시즌 8호골 쏜다

주말 OGC 니스전 출격

박주영(AS모나코)이 시즌 8호골을 노린다. 박주영이 2경기 연속골을 노리는 상대팀은 31일 새벽 3시 맞붙는 정규리그 16위인 OGC 니스다.

정규리그에서 최근 6경기에 연속 풀타임 활약을 펼치며 AS모나코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는 박주영은 지난 25일 FA컵 32강전에서 헤딩 결승골을 터트리면서 골 감각을

높였고, 이번에 만날 상대도 중하위권 팀이어서 득점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다음달 1일 새벽 정규리그 3위 아스널과 원정 경기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박지성은 지난 28일 칼링컵 준결승 2차전에 결정해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 맨유(승점 50)와 맞붙을 아스널(승점 49)은 선두에 복귀한 첼시(승점 51) 추격에 안간힘을 쓰고 있어서 이번 경기는 불꽃 튀는 혈전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축구대표팀 5월 소집 힘들 듯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이 기대하는 태극전사들의 5월 초 소집은 희망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2010 K-리그 일정을 발표하면서 정규리그 10라운드와 11라운드, 12라운드를 5월1일부터 9일까지 배치했다.

5월1일 세 경기, 2일 네 경기가 잡혀 있고 어린이날인 5일에는 전국 7개 구장에서 경기가 열린다.

또 8일 네 경기, 9일 세 경기가 편성돼 있다. /연합뉴스

여복싱 2포기 게임 정식종목 채택

여자복싱이 아시안게임 무대에 처음으로 선을 보인다.

아시아올림픽위원회(OCA)는 여자복싱의 3종목을 오는 11월 열리는 광저우아시안 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여자복싱이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CA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난해 8월 여자복싱을 2012년 런던올림픽의 종목으로 추가함에 따라 아시안게임에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아사다 ‘최고 기량’ 역전 우승

4대륙 피겨선수권…곽민정 생애 최고점수 6위

‘일본 피겨의 간판’ 아사다 마오(20)가 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피겨선수권대회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아사다는 29일 전주 화산아이스링크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 68.58점에 예술점수 58.16점을 더한 126.74점을 받아 27일 쇼트프로그램에서 얻은 57.22점을 합쳐 183.96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시니어 첫 무대를 밟은 막내 곽민정(16·군포 수리고)의 연기가 가장 빛났다. 곽민정은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 58.87점과 예술점수 42.16점을 기록, 자신의 국제대회 개인 최고점(70.45)을 무려 30.58점이나 높인 101.03점을 받았다.

곽민정은 쇼트프로그램 점수 53.68점을 더해 종합점수 154.71점으로 시니어 데뷔전에서 6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화촉

▲문정식·김순자씨 아들 형진(전남의대 안과외과)군 오경목(前 전남도청 도로 행정담당)·윤정례씨 딸 수민(전남대의대 소아청소년과 의사)양=30일(토) 낮 12시 양동 금호 웨딩의전당 3층 노블레스 홀

▲진동선·김정희씨 막내 관용군 이특

수·공효승씨 장녀 인숙양=30일(토) 낮 12시50분 에벌루션웨딩컨벤션 2층(라벤더홀)

▲김태영(미래세한감정평가법인 대표)씨 장남 환철(송의중 교사)군 나도팔(전남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씨 장녀 성미(송의고 교사)양=30일(토) 낮 12시 30분 조선컨벤션웨딩 3층 컨벤션홀.

▲조승곤(법무법인 중추 변호사)·여경수씨 장남 재철(보스톤컨설팅 그룹)군 박기범(삼영주유소 대표)·노춘이씨 차녀 유연(LG 생활건강)양=31일(일) 오후 2시30분 서울GS타워(아모리스홀)

부음

▲이승자씨 별세 김영민·현경씨 모친 상=발인 31일(일) 화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이정자씨 별세 황동구·천명·순일·윤숙·혜숙·은주씨 모친상=발인 31일(일)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이유귀씨 별세 석재·복재·방재·영재·효숙·애숙씨 부친상=발인 31일(일) 화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IFBA 김단비 1차방어 성공

프로복싱 IFBA(국제여자복싱협회) 미니플라이급(47.620kg) 세계챔피언 김단비(19·안성제일)가 1차 방어전에 성공했다.

김단비는 29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두원공과대학에서 열린 세계타이틀 매치 10라운드 경기에서 가미무라 사토코(35·일본)를 맞아 심판 전원 일치 판정승을 거뒀다.

신장 150cm의 김단비는 자신보다 무려 14cm가 큰 상대를 맞아 초반에는 좀처럼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지 못하며 고전했다.

하지만 4라운드 이후 상대 안면에 강타를 자주 적중시키며 리드를 잡은 끝에 승리를 따냈다. /연합뉴스

CBS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정열의 열정을 찾습니다

2010 CBS사원 공개채용 안내

이 모집대상 및 응시자격

모집부서	모집인원	나이	학력	응시자격
1부서	1명	20~29세	대졸 이상	1. 2010년 1월 1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2. 2010년 1월 1일 현재 국내 거주 3. 2010년 1월 1일 현재 학력 미달 4. 2010년 1월 1일 현재 취업 상태 5. 2010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해외 체류 6. 2010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해외 체류
2부서	1명	20~29세	대졸 이상	1. 2010년 1월 1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2. 2010년 1월 1일 현재 국내 거주 3. 2010년 1월 1일 현재 학력 미달 4. 2010년 1월 1일 현재 취업 상태 5. 2010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해외 체류 6. 2010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해외 체류
3부서	1명	20~29세	대졸 이상	1. 2010년 1월 1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2. 2010년 1월 1일 현재 국내 거주 3. 2010년 1월 1일 현재 학력 미달 4. 2010년 1월 1일 현재 취업 상태 5. 2010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해외 체류 6. 2010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해외 체류

07 문의
 인사팀 02-3400-1111, 02-3400-1112, 02-3400-1113
 *지원서 제출은 인터넷을 통해 www.cbs.co.kr 2010 CBS사원 공개채용 홈페이지
 *서류 접수 기간: 2010. 1. 30. 오후 5시 ~ 2010. 2. 1. 오후 5시

Multimedia Group CBS